OPEN ACCESS
CC BY ND

한국학 제48권 제3호 통권 180호 335~375쪽
doi: 10.25024/ksq.48.3.202509.335

연구논문

풍산 류씨 가문의 하외도(河隈圖) 제작과 학맥의 현창

정은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미술사 전공
jeje387@hanmail.net

Ⅰ. 머리말
Ⅱ. 풍산 류씨 가문의 하외도 제작 내력
Ⅲ. 《하외팔곡도》와 영남 학맥의 현창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서애의 6대조 류종혜(柳從惠)는 여말선초에 안동 풍산읍 하회마을에 정착해 풍산 류씨 입향조로서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5대조 류홍(柳洪)은 좌군사정(左軍司正)으로 서울 생활에 적응하면서, 선산 김씨 김관의 사위로서 15세기 영남 사림파의 핵심인 김종직의 고모부가 되어 인척관계를 맺었다. 서애의 증조부 류자온(柳子溫, 1453~1502)은 성균관 진사로 학덕이 높았으며, 조부 류공작(柳公綽, 1481~1559)은 간성군수 재임 시 백성에게 신망이 높았다.

이후 풍산 류씨 가문이 주목받은 것은 서애의 부친인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1515~1573)에 이르러서이다. 그는 문과에 급제하고 사간원 사간, 예조참의, 좌부승지 등의 내임 외에도 평안도 감군어사, 경차관, 황해도관찰사와 의주목사, 정주목사를 역임하여 목민관으로서 뛰어난 행정 능력을 보여 서도민(西道民)의 칭송을 받았다. 특히 학문적으로 퇴계학의 수용을 통해 가학(家學)의 발전 기반을 닦았으며, 숙부 류경심(柳景深, 1516~1517)은 문장과 경륜으로 예조참판, 대사헌을 거쳐 병조참판, 평안도관찰사를 지내 풍산 류씨 가문의 중앙 정계 진출의 기틀을 마련했다.

풍산 류씨와 퇴계 이황의 관계를 살펴보면, 류중영이 유정서원(有定書院)을 건립하고, 평안도에서 『주자서절요』를 간행하는 등 퇴계의 학술사업을 지원하고, 가학을 여는 데 있어 퇴계에게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했다. 류중영은 부친 류공작의 묘갈문을 퇴계에게 부탁했고, 1554년 그의 장자 류운룡과 1562년 차자 류성룡을 퇴계 문하에 보내 수학하게 하여 퇴계학파의 1세대이자 영남을 대표하는 명문으로 위상을 확고히 했다.[1] 이후 이들은 관료적 바탕

※ 이 논문은 2024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과제(한국 고문서 역주 및 심층 연구)로 수행된 연구임(AKSR2024-J03).

위에서 퇴계학을 비롯한 16세기 학계의 지식을 수용하여 일문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이러한 풍산 류씨 가문의 덕행과 학문적 도의를 중심으로 한 경세가적 식견은 류중영의 아들 류운룡과 류성룡에게 계승되어 더욱 확대되고 현실적으로 발양되는 계기가 되었다.[2] 이렇게 형성된 풍산 류씨의 세거지인 안동 풍산면 하회(河回)마을은 안동부에서 서쪽 40리 거리로 화산의 남쪽, 낙동강의 북쪽에 위치했다.[3] 강을 따라 맑은 못과 긴 여울에 기이한 암벽과 산기슭이 곳곳에 펼쳐져 하회의 한 굽이가 이 지역 문화 경관을 대표한다.

하외도(河隈圖) 병풍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황이 서문을 남긴 하외화병(河隈畵屛)이 16세기 류중영의 전장(田莊)과 그 주변 승경을 그린 소유지 그림이었을 것으로 추정했고,[4] 1828년 이의성이 그린 하외도 10폭 병풍(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그림 8곡 중 도산서원이 나머지 7개 장소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이를 제1곡에 둔 이유를 풍산 류씨 학맥의 근원을 이황에게 두고자

---

1 퇴계와 류중영의 교유는 적어도 1554년 이전으로, 이황이 대사성, 형조참의, 병조참의, 첨지중추부사를 역임하며 서울에 머물렀고, 류중영도 1553년 9월 장령, 1554년 이후 사복시정, 사간 등의 벼슬을 하며 서울에서 지내고 있었다. 또한 『퇴계집』에는 류운룡에게 보낸 답서가 총 19통이 수록되었고, 류성룡에게 보낸 답서도 4통이 실려 있다. 안병걸, 「풍산 류씨 가문의 학문 전통과 가학 계승」, 『국학연구』 35(2018), 163~179쪽.

2 이상정은 『풍산류씨족보』의 서문에서 안동 하회마을에서 세거해 온 풍산 류씨의 가문 내력을 언급하며, 입향조 류종혜에 이어 柳仲郢과 柳景深 형제는 앞에서 발전시켰고, 謙菴 柳雲龍과 西厓 柳成龍 형제가 그 단서를 이어 그 덕행과 道義의 아름다움은 진실로 영남 유림의 영수가 될 만하다고 평가했다. 李象靖, 『大山集』 권43, 「豐山柳氏族譜序」; 김학수, 「17세기 西厓 柳成龍家의 學風과 그 계승 양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55(2014), 63~69쪽; 안병걸, 앞의 글(2018), 179~181쪽.

3 본문에서는 낙동강의 물굽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주요 군현인 안동부, 예안현, 용궁현 등 낙동강 일대의 지역을 '河隈'로 통칭하고, 낙동강의 곡류가 에워싼 풍산 류씨의 세거지를 '河回'로 구분하여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4 조규희, 「所有地 그림의 시각언어와 기능: 〈石亭處士幽居圖〉를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3(2004), 13쪽.

하는 의도로 보았다.[5] 최근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하외도 10폭 병풍이 안동의 명소와 풍산 류씨 및 동래 정씨의 세거지를 그린 것으로 구분했다. 또한 화가 이의성의 관력을 파악하고, 병풍의 화풍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병풍의 내용과 형식 분석에서 미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6]

한편, 현전하는 하외도 10폭 병풍의 제6곡 하회도와 하외 16경과 관련한 시문을 비교하여 하외 16경에 드러난 경관상은 부용대와 하회마을 정사를 중심으로 한 관념적 사고를 경물에 의탁해 표현한 이 지역 문인들의 도학적 세계관이 반영된 풍경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안동 하회마을 일대의 문화경관에 대해 양진당과 충효당을 대상으로 하회마을의 종택경관을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는 의미체계로 해석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7]

본문에서는 16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풍산 류씨 가문에서 제작한 하외도(河隈圖)의 전통과 그 문화사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하외도가 단순한 실경산수화가 아니라 가문과 학맥의 현창이라는 목적 아래 제작되었음을 밝히고, 이를 통해 사족(士族) 중심의 지역사회와 학문 전통, 경관 인식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었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또한 류중영이 1568년 고향 하회를 그리워하며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하외상하낙강일대도(河隈上下洛江一帶圖)》와 1578년 차남 류성룡이 화원을 통해 제작한《하외산수도(河隈山水圖)》를 최초로 소개하고 문집과 시문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 1828년 9대손 류철조가 화가 이의성에게 의뢰하여 제작한《하외팔곡도(河隈八曲圖)》병풍을 중심으로,[8] 그 형식과 내용, 사

---

5 유재빈,「陶山圖 연구」,『미술사학연구』250-251(2006), 204쪽.

6 강경원,「李義聲의 실경산수화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23), 89~100쪽.

7 노재현·이현우,「「河回十六景」과 〈河隈洛江上下一帶圖〉를 통해 본 하회16경의 경관상」,『한국전통조경학회지』31(2013); 권선정,「사회적 지위상징으로서의 경관: 河回의 豊山柳氏 宗宅景觀 읽기」,『국토지리학회지』37-2(2003).

8 이 병풍이 소장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李義聲筆 河隈圖', '李義聲筆 河隈圖十幅屛風' 등

족 공간 간의 연계를 문화사적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풍산 류씨 가문이 제작한 하외도가 단순한 경승 묘사가 아니라, 혈연·지연·학연을 통합하는 시각적 서사로 기능하며, 영남 사족의 정체성과 역사적 기억을 재현하는 중요한 매체였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Ⅱ. 풍산 류씨 가문의 하외도 제작 내력

1. 1568년 류중영의《하외상하낙강일대도》제작

류중영은 1566년 정주목사로 부임했을 때,[9] 퇴계 이황이 편찬한『주자서절요』를 목판으로 판각했고, 화공에게 고향인 안동 하회와 낙동강 일대 전원도를 그리게 하여 고향에 대한 회포를 달랬다. 이때 정유길(鄭惟吉, 1515~1588), 박순(朴淳, 1523~1589), 이황(李滉, 1501~1570) 등이 제영을 붙였다. 이황이 류중영의 하외병풍에 붙인 서문과 제시는 다음과 같다.

> 풍산 류언우[류중영]가 정주에 머물 때 병풍 한 벌을 제작하여 '하외상하낙강일대도'를 그리도록 명령하였다. 하외는 공의 전원이 있는 곳으로 먼 객지의 벼슬살이에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부쳤다. 그때[1568년] 명의 조사 한림 성헌과 급사중 왕새가 장차 이르자[10] 동래의 임당 정유길이 영위사, 중원의 사암 박순이

으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묘사된 지역이 낙동강 및 그 지류와 인접해 있어 '曲'으로 구분했기에 '河隈八曲圖'로 지칭하려 한다. 여기서 팔곡은 낙동강 지류를 따라 형성된 지역 사족과 관련된 8처를 지정한 것으로, 주자의 九曲圖 전통과는 무관하다.

9 유중영의 생애와 1562년 管押使로서 북경사행에 대해서는 이영춘,「柳仲郢의〈燕京行錄〉」,『조선시대사학회』32(2005), 149~183쪽 참조.

10 『宣祖實錄』1년(1568) 7월 2일.

원접사가 되었고, 안동 낙곡 김덕룡이 관찰사, 전성 이해수(李海壽)과 영성 신응시(辛應時)가 종사관으로 의주로 가서 문후하였다.[11] 그때 이 병풍을 보고 모두 완상하고 제영하니 진실로 한 때의 성대한 일로 만나기 어려운 행운이었다. 그해 겨울, 언우가 임소를 떠나 서울로 왔다가 얼마지 않아 청주목사로 나가게 되어 내게 이 병풍을 보여 주며 [위 사람들에] 이어서 시를 지어 줄 것을 간곡하게 청하였다.

나는 언우가 떠나는 것이 참으로 애석했지만 그를 남게 할 방도가 없었다. 더구나 우리 집도 하외 상류에 있건만 한번 떠나와 돌아가지 못하고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병풍을 펼쳐 손가락으로 짚어 가며 살펴보니 더욱 감개무량하여 이별의 소회와 함께 느낀 바를 펼쳐 읊으니 근체시[칠언율시] 2수가 되었다. 이를 그대로 병풍 위에 써서 예문관 검열인 공의 차남 [류성룡] 편에 청주로 부쳤다.[12] 일찍이 동파의 금산사 시를 보니 "내 집은 강물이 처음 발원하는 곳인데, 벼슬살이로 강물을 따라 바다로 흘러드는 곳까지 왔네."라고 하였고, 그 끝에 "밭이 있어도 강물처럼 돌아가지 못하네."라고 하였다.[13] 지금 우리 두 사람의 처지도 이와 유사하므로 맨 마지막에 함께 언급했다.[14]

---

11 『退溪文集攷證』 책3 권5, 詩, 「題柳彦遇云云」. 『퇴계문집고증』은 처음에 柳道源(1721~1791)이 자신의 隨錄과 洪汝河(1621~1678)가 詩卷에 부기한 訓解, 그리고 金江漢이 서간 부분을 주석한 溪集考證을 합하여 1788년에 정리·편집했다. 이후 그의 현손인 柳建鎬가 이황의 후손 李野淳이 隨記한 要存錄을 각 권말에 첨부하여 1891년에 목판으로 간행했다.

12 『退溪文集攷證』 책3 권5, 詩, 「題柳彦遇云云」; 『西厓先生年譜』 권1, 연보, 隆慶 3년(1569).

13 蘇軾(저), 曾棗庄(주), 「遊金山寺」, 『蘇軾詩文詞選擇』(成都: 巴蜀書社, 1991), 16~19쪽; 소식은 1070년 개봉에서 판관으로 재직 중 왕안석의 신법을 비판하고 외직을 자청해 이듬해 항주 통판으로 부임했다. 그는 금산사에서 장강 야경을 보며 현실 정치에 대한 염증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표현했다.

14 李滉, 『退溪集』 권5, 「題柳彦遇河隈畫屛【幷序】」, "豐山柳彦遇在定州日 作一屛 令畫河隈上下洛江一帶圖. 河隈公田園所在 以寓其遠宦思歸之意 于時 詔使成翰林憲 王給事璽將至 東萊鄭林塘吉元以迎慰使 中原朴思庵和叔以遠接使 永嘉金駱谷雲甫以觀察使 全城李大仲 寧城辛君望俱以從事 往候于龍灣. 見是屛 皆爲之玩賞題詠 實一時之盛 難遇之幸也. 是年冬 彦遇去任來京

定民方詠去思吟　백성을 안정시키고 이제 떠남을 아쉬워 시를 읊고
又佩湖州印去今　또다시 청주목사의 官印을 차고 지금 떠나가네.
臺閣剩員無寄足　조정에 벼슬아치 넘쳐나 설 자리 없으니
壑溝多瘠更關心　도탄에 빠진 야윈 백성에게 더욱 마음 쏟았다네.
風流洛舍時看畫　풍류 있는 서울 모임에서 때때로 그림 감상하고
曠蕩天門幾撫襟　구중궁궐에서 몇 번이나 옷깃 어루만졌던가.
我亦出山乖遠志　나 역시 산림에서 나와 큰 뜻 펼치려 했으나 어그러져
一屛相對意難禁　병풍 마주하며 상념 금하기 어렵다네.

洛上河隈擅勝名　낙동강의 하외는 명승으로 이름나
公曾於此占鷗盟　공은 일찍이 여기서 백구와 살겠다고 맹세했네.
幾年遊宦憑歸夢　벼슬살이 떠돌며 귀향 꿈에만 의지한 지 몇 해던가.
他日丹靑感列英　언젠가 이 그림 여러 영걸의 마음 감동시키리.
滿意煙波常在目　마음 가득한 연파 항상 눈에 아른거려
一毫榮辱可忘情　털끝 만 한 영욕도 잊을 수 있으리라.
因君起我江源興　그대 덕에 나도 고향 생각 일어나니
欲趁春風返舊耕　봄바람 좇아 옛 밭으로 돌아가고 싶구려.

류중영은 정주 목사로 재임 중에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 하외의 산수를 그리게 했다. 그는 1568년 명 가경제의 황태자 책봉을 알리는 조서를 전달하기 위해 한림원검토 성헌(成憲)과 병과급사중 왕새(王璽)가 조선에 파견되자 도

師 席未暖而出牧淸州臨行 示余以是屛 求續題良勤. 余固惜彦遇之去 無計以留之. 且余薄業 亦在河隈上流 一出未歸 歲且向晏 展畵指點 益興慨嘆 因追敍別意幷所感 吟成近體二章 錄寄淸州 仍題屛上 以付淸州之仲胤檢閱郎君云. 嘗見東坡金山寺詩 '我家江水初發源 宦遊直送江入海'云云 其末云. '有田不歸如江水' 今吾二人事 與彼相類 故最後幷及之." 밑줄은 필자 강조.

차사원으로 의주에서 명사를 영접하고 전송하는 일을 맡았다. 이때 류중영은 명사의 영위사 정유길, 원접사 박순, 관찰사 김덕룡과 종사관으로 파견된 이해수(1536~1599), 신응시(1532~1585)를 의주 용만관에서 만났다. 이에 유중영은 이들 모두에게 병풍을 보여 주며 제영을 받았다. 당시 유중영과 동갑으로, 영위사였던 정유길이 병풍에 붙인 제영이 『임당유고』에 남아 있는데, 이 그림을 '향산별서도(鄕山別墅圖)'라고 명명한 것이 주목된다.

洛江淸漲欲侵扉　낙동강 맑은 물은 사립문을 넘나들건만
千里帆檣到此稀　천리 오가는 돛배도 이곳까지는 드물게 이른다네.
鳥嶺山川通氣候　조령의 산천은 기운이 통하는 듯하고,
龍宮樹木雜煙霏　용궁현 수목엔 자욱한 연무가 뒤섞였네.
地從畫筆來窮塞　땅은 화필에서 나와 변방에 이르렀고,
人在塵纏夢舊磯　사람은 속세에 매였어도 옛 나루터를 꿈꾼다네.
一曲桑麻知保里　한 굽이 돌아가면 상마 심은 지보리이건만
何緣同駕鹿車歸　무슨 인연으로 함께 수레 타고 돌아갈거나.[15]

류중영이 화원을 시켜 제작한 《하외상하낙강일대도》 병풍에 대한 제영에 참여한 인물 중 이해수와 신응시는 그로부터 2년 뒤인 1570년 류중영의 차남 류성룡과 독서당에서 사가독서를 함께 한 인연으로 독서당 계회에 참여했던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16] 이들은 모두 문재(文才)가 있는 관료로, 부친

15 鄭惟吉, 『林塘遺稿』 권1, 題詠錄, 「義州柳牧使仲郢鄕山別墅圖」.

16 한국학중앙연구원(편), 『고문서집성 15-18: 하회 풍산류씨편』(정서본)(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한국학중앙연구원(편), 『고문서집성 19: 하회 풍산류씨편』(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柳成龍, 『聖諭錄』, 「讀書堂契會帖」, 17b, 18b. 당시 독서당계회에 함께 참여한 인물은 류성룡·이해수·신응시 외에도 윤근수·정유일·정철·구봉령·이이·홍성민 등 총 9인이었다. 이때 제작된 〈독서당계회도〉가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었다.

류중영에 이어 아들 류성룡과도 인연이 깊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정유길 역시 1538년 별시 문과에서 장원한 인재로 1544년 이황·김인후 등과 함께 동호(東湖)의 독서당에서 사가독서를 했던 인연이 있었다. 그는 1560년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역임, 이조판서에 오르고, 1567년 진하사로 북경까지 사행했으며, 1568년 경기도관찰사를 역임하면서 명사를 맞이하기 위한 영위사로 차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유중영의 병풍 그림을 '향산별서도'라고 명명한 것은 유중영의 고향인 풍천면의 주변 산과 별서 또는 정사(亭舍)가 주요 경물로 묘사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인용한 시에서 지보리는 경상도 용궁현 내에 있는 지명으로, 정유길의 연고지였다. 동쪽은 하회마을이 있는 안동 풍천면, 서쪽은 풍양면, 남쪽은 낙동강을 경계로 의성군 다인면과 접한 곳이다. 그림 속에는 낙동강은 물론, 인근 유중영의 별서와 조령의 산천, 용궁현 수림 등이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유길은 류중영의 병풍 그림을 보면서 낙동강 지류에서 낚시하던 고향의 옛 추억을 떠올린 것이다. 1544년 정유길은 이황과 동호에서 사가독서를 했고, 1570년 차남 류성룡과 독서당에서 사가독서를 함께한 이해수·신응시가 《하외상하낙강일대도》의 제영에 참여해 한양의 지성적 인맥이 시화를 통해 영남 사림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중영은 1568년 10월 한양에서 발령을 기다렸다가 11월에 청주목사로 부임했다.[17] 이황 역시 고향인 예안에 있다가 1567년 명나라 융경제의 사절이 조선에 파견되자, 조정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한양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1568년 명종이 돌연 서거하고 선조가 즉위하면서 이황을 부왕의 행장수찬청 당상경(堂上卿) 및 예조판서에 임명했다. 따라서 유중영이 이황에게 제발을 부탁한 것도 이때의 일로, 이황은 수차례 벼슬을

17 권진호, 「立巖 柳仲郢의 삶과 시세계」, 『국학연구』 31(2016), 459~490쪽.

사양하고 낙향했으나 이때만큼은 관직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소식의 시 「유금산사(遊金山寺)」를 인용해 돌아갈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다시 청주목사로 떠나는 유중영에게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전별시를 써 준 것을 알 수 있다. 이황의 시에서는 유중영이 보여 준 《하외상하낙강일대도》를 감상하며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고픈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1568년 11월 류중영이 이미 청주목사로 부임한 이후 이황이 병풍에 제시를 써서 차자인 류성룡을 통해 청주로 전달한 것이다. 따라서 류성룡도 이 병풍의 제작 의도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2. 1578년 류성룡의 《하외산수도》 제작

류성룡은 류운룡에 이어 1562년 이황의 문하에 입문하여 수개월 동안 머물며 『심경』, 『근사록』 등을 수학했고, 이황의 문인으로 『도산문현록』에도 입록되어 학문과 행의로서 영남 학맥에서 퇴계의 학문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황과 류중영의 학문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들 형제의 퇴계 문하 입문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18] 류성룡은 1607년 2월 병이 위독해지자 초당(草堂)으로 거처를 옮기고 임종 전에 자제들에게 그의 마지막 마음을 담아 시 1수를 남겼는데, 그중 "너희 자손들에게 권하노니 모름지기 삼가거라. 충효 이외의 다른 일은 없느니라[勉爾子孫須愼旃 忠孝之外無事業]."라고 했던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 서애의 가학 핵심은 '충효(忠孝)'였다.[19] 그의 셋째 아들 류진(柳袗, 1582~1635)이 충효일사론(忠孝一事論)을 강조하고,[20] 증손 류의하(柳宜

---

18 김학수, 「여강서원과 영남학통: 17세기 초반 묘향논의를 중심으로」, 조선사연구회(편),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서울: 조선사회연구회, 1998), 469~471쪽.

19 『西厓先生年譜』 권2, 「有詩一首示子弟」.

20 류진은 先考의 학문과 가계를 가장 잘 계승한 인물로, 종법을 수용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河, 1616~1698)가 당호를 충효당(忠孝堂)으로 지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21]

류성룡이 1578년 8월 홍문관 응교로 전임되었을 때, 그림 잘 그리는 화원을 불러 《하외산수도》를 그리게 했다.[22] 당시 《하외산수도》가 족자 형태였는지 병풍 형식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류성룡의 《하외산수도》 제작은 선친 류중영의 전례에 따른 것으로, 조상에 대한 숭모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의탁하고, 선친의 병풍에 제시를 남겼던 퇴계 선생의 뜻을 함께 기리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류성룡이 제작하게 한 《하외산수도》에는 무슨 내용을 담았을까? 당연히 선친의 선영(先塋)과 자신의 서재를 주요 소재로 그렸을 것이다. 류성룡은 이미 1578년 4월 이전 하회의 북쪽 숲에 5칸 규모의 정사를 지었는데 동쪽은 마루이고, 서쪽이 서재였다. 서재에서 북쪽으로 돌아가면 서쪽 강이 굽어 보이는 높은 누가 있었다. 류성룡은 정사를 다 짓고 '원지(遠志)'라고 편액했다. 그는 공간은 비록 좁지만 도연명의 시에서 "마음이 세속과 멀어 사는 곳이 절로 한가롭다."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며 위로했다.[23] 그 정사 뒤에 원지라는 소초(小草)가 자라나 산 비에 푸른빛을 머금고 정취가 있어 약을 지을 때마다 넣어 자신의 심기를 다스렸기에 그 약초의 공을 잊지 않고 서재 이름을 원지정사(遠志亭舍)라 지었다고 했다.

후한의 예에 따라 기일제 하루 이틀 전부터 行素하는 등 풍산 류씨 가의 제례를 완성했고, 풍산 류씨의 연원을 밝히는『家譜』를 작성했다. 류진의 형제들은 선고가 졸한 지 5년 뒤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 壽洞에 齋舍를 건립하고, 이곳에 宗山을 형성하려 노력했다. 김명자, 「16-17세기 하회 풍산류씨가의 종법 수용 과정」,『대구사학』96(2009), 15~16쪽.

21 李萬敷,『息山文集』, 권17,「忠孝堂記」; 李栽,『密菴集』권13, 記,「忠孝堂記」; 김학수, 앞의 글(2014), 76~77쪽.

22 『西厓先生年譜』권1,「萬曆六年戊寅【先生三十七歲】」, "還朝 復拜弘文館應敎 先生在玉堂時 倩善畫者作河隈山水圖 以寓思親戀鄕之意".

23 柳成龍,『西厓文集』권17, 記,「遠志精舍記」.

그러나 류성룡은 원지정사를 지은 뒤에도 이곳이 마을과 멀지 않아 그윽한 멋을 즐길 수 없어 늘 아쉬워했다. 이후 그는 북쪽 못을 건너 석애(石崖) 동쪽에 다른 터를 얻어 1576년부터 옥연정사(玉淵精舍)를 세우려 구상했으나, 그 비용을 댈 계책이 없어 승려 탄홍(誕弘)의 도움으로 1586년에야 그 대강을 완성할 수 있었다.[24] 유성룡은 옥연정사의 장점으로 인가에서 그리 멀지 않으나 앞에 깊은 못이 가로막아 배가 없으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어 속세를 피해 조용하게 사는 것에 도움이 되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류성룡은 옥연정사를 정계 은퇴 후 조용히 살며 여생을 마칠 곳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옥연정사의 입지는 강변의 풍광을 안고 뒤로는 높은 언덕이 있었다. 우측에는 붉은 벼랑이 치솟고, 좌측에는 흰 모래가 에워쌌으며, 남쪽을 바라보면 멀리 산봉우리들이 마치 두 손 맞잡고 읍하는 것 같았다. 여기에 촌락이 연수 사이에서 보일 듯 말 듯했고, 화산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했다. 매번 달이 뜬 동쪽 봉우리가 찬 그림자를 거꾸로 드리워 반은 호수에 잠겼는데 고요한 물결 위에 금벽(金璧)을 머금은 듯한 풍경이 가히 완상할 만했다.[25]

따라서 그가 《하외산수도》를 제작했던 1578년에는 이미 자신의 서재로 사용했던 원지정사와 새로 터를 잡은 옥연정사의 주변 자연 풍광을 자연스럽게 그렸을 것이다. 류성룡은 이백이 고숙현(姑熟縣)의 10대 경관을 시로 옮긴

---

24 옥연정사 외에도 이현보의 靈芝精舍와 金緣(1487~1544)의 雲巖精舍도 祖澄과 德安이라는 승려들이 건축 공사에 참여하여 정사를 세웠고, 朴英(1471~1540)의 송당정사 중건에도 황악산 승려들이 참여하는 등 당시 문인의 강학처와 정사 건립에 승려들이 참여한 사례가 다수 보인다. 구봉수, 「河回마을의 精舍建築에 관한 硏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33~34쪽.

25 柳成龍, 『西厓文集』 권17, 記, 「玉淵書堂記」.

「고숙십영(姑熟十詠)」을 본받아[26] 하회마을 동쪽 강 건너 위치한 옥연정사와 인근 소요처, 그리고 겸암정사로 이르는 주요 십경을 읊었다.[27] 그는 1571년 하회마을에서 강 건너편 서쪽 언덕에 서당을 지으려 했으나 땅이 협소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류성룡의 자호인 '서애(西厓)'도 여기서 비롯되었다.[28]

옥연정사와 겸암정사 일대의 10대 승경은 군위현 송현(松峴)의 선영 남쪽에 있는 남계서당의[29] 동재인 완심재(玩心齋),[30] 수죽(脩竹)으로 두른 옥연정사의 서측 협문으로 계선암에 이르는 길로 통하는 간죽문(看竹門), 푸른 벼랑 사이에 두 그루의 소나무가 마주 보고 있는 쌍송애(雙松厓), 부용대 석벽 아래 강이 흘러 잔물결 아득히 끝이 없는 능파대(凌波臺), 옥연정사 인근 적벽 위 달관대(達觀臺),[31] 부용대의 석벽 아래 있는 맑은 추월담(秋月潭), 부용대 아래 배를 매어두는 바위인 계선암(繫船巖), 옥연정사와 겸암정사 사이에 작

---

26 이백은 「姑熟十詠」에서 姑熟溪, 丹陽湖, 謝公宅, 凌歊臺, 桓公井, 慈姥竹, 望夫山, 牛渚磯, 靈墟山, 天門山 등 10경을 시로 읊었다. 『西厓先生年譜』 권1, 萬曆 14년(1586).

27 1604년 류성룡의 문인 정윤목(1571~1629)이 류성룡의 「옥연십영」 시에 화운하여 바치기도 했다. 鄭允穆, 『淸風子集』 권2, 오언고시, 「玉淵十詠【伏呈西厓先生】」; 續集年譜, 萬曆 32年(甲辰); 류성룡의 옥연십영과 하회의 장소성에 대해서는 이홍식, 「서애 류성룡의 玉淵十詠을 통해 본 하회의 장소성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40(2021), 229~253쪽.

28 『西厓先生年譜』 권1, 隆慶 5년(1571).

29 류성룡의 모친 延安李氏의 친가가 군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한 적이 있다. 1586년 서원으로 증축되면서 류성룡과 이호민을 배향했는데, 1868년 대원군이 전국의 未賜額 서원을 철폐하자 위패를 하회로 옮긴 후 일부 건물을 서당으로 사용했다. 柳雲龍, 『謙菴集』 권5, 記, 「松峴墓山記」; 『西厓先生年譜』 권1, 嘉靖 21년(1542).

30 현재는 완심재가 옥연정사의 안채에 걸려 있으나, 이는 19세기 서원이 철폐되자 군위 남계서당의 것을 이곳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서애가 안동과는 거리가 먼 완심재를 10경에 포함시킨 것은 모친의 선영이 있는 곳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31 류성룡은 1599년 초 귀향 후 낙동강을 사이에 둔 옥연정사에서 『징비록』 등 말년 저술에 힘쓴 것으로 보인다. 『西厓先生年譜』 권2, 萬曆 28년(1600), 달관대는 步虛臺를 1600년 8월 증축하여 개명했다. 옥연십영의 위치 비정과 암벽 각자에 대해서는 노재현·오현경·심상섭, 「하회마을 부용대의 경관 해석 및 보전방안: 「玉淵書堂記」와 「玉淵十詠」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1(2013), 60~69쪽. [그림6] 옥연십영의 경관체험로 구상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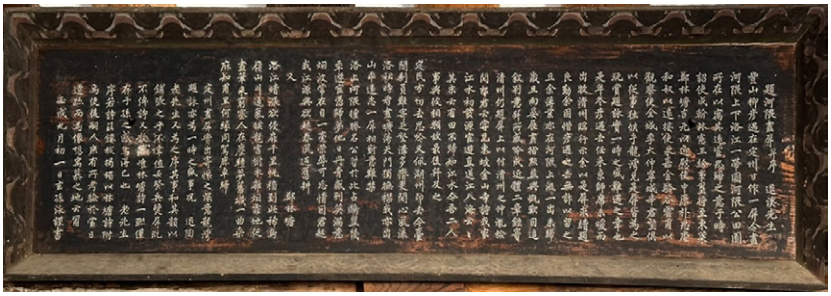

그림1-하회마을 양진당 내부 벽에 걸린 「제하외화병병서」

은 길을 만들어 사이 바위틈에 복숭아 꽃을 심어 놓은 도화천(桃花遷)과[32] 부용대 하단 중앙에 우뚝 솟은 지주암(砥柱巖), 1567년 류운룡이 후학 양성을 위해 세운 겸암정사(謙巖精舍) 등이다.[33] 옥연십영은 류성룡의 사후 후손들과 문인들이 지은 하회 승경에 대한 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34]

---

32 柳雲龍, 『謙菴先生年譜』 권1, 嘉靖 27년(1548).

33 노재현·오현경·신상섭, 앞의 글(2013), 68쪽. [그림6] 옥연십영의 경관 체험로 구상 참조.

34 류성룡의 장손 柳元之(1598~1674)가 하회 16경을 구성하면서 류성룡의 옥연십경을 기준으로 옥연정사, 겸암정사, 입암, 화산, 만송정 송림, 율원, 남산 감투봉, 상봉정, 남포, 원지봉, 부용대, 수림산 등을 소재로 했다. 겸암정사와 옥연정사 일대를 주요 경승지로 설정한 것은, 풍산 류씨 가문의식의 시각적 구현이자 조상에 대한 현창을 목적으로 한 창작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柳元之, 『拙齋集』 권12, 記, 「謙庵玉淵二精舍十六景記」; 류한영, 「시문을 통해 본 하외16경의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류한영·장태현·신상섭, 「「겸암옥연이정사십륙경기」에 나타난 하회16경의 경관특성」, 『韓國傳統造景學會誌』 22-1(2004), 56~65쪽; 류성룡의 5세손 柳聖和(1668~1748)는 '河上八景'에 류성룡의 옥연십경 중 옥연정사, 추월담, 도화천, 달관대, 능파대를 포함시켰고, 상봉정, 원지정사와 병산서원을 새로 넣어 서애의 학덕을 기리는 상징적 공간으로 부각하려 했다. 그 밖에도 류성룡의 문인 김여만과 류성룡의 방계 후손 이상정, 이만부, 권구와 권덕수 부자 등도 하회의 승경과 관련한 시문을 남겼다. 金如萬, 『秋潭文集』 卷1, 詩, 「次河上八景韻」; 李萬敷, 『息山文集』 권1, 詩, 「河回【西厓先生所居】」; 權榘, 『屛谷集』 권8, 「玉淵書堂重修記【己酉】」; 權榘, 『屛谷集』 속집 권4, 「屛山六曲」; 權萬, 『江左文集』 卷1, 詩, 「河回十六景」; 權德秀, 『逋軒文集』 卷1, 詩,「河回十六景」; 李象靖, 『大山集』 권44, 記, 「謙巖亭記【丁丑】」.

류운룡의 종택 양진당 대청 벽면에 걸린 「제하외화병병서(題河隈畵屛幷序)」 편액에 의하면, 풍산 류씨 가문에서 제작한 하외도에 대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그림1). 이 편액에는 앞서 소개한 퇴계 이황의 서문과 시,[35] 그리고 정유길의 시가 각자되었고, 말미에는 류운룡의 6대손 류영(柳泳, 1687~1761)이 1742년 7월 초하루에 아래와 같은 발문을 새겼다.[36]

> 정주의 그림 병풍은 실로 그리움을 담은 깊은 뜻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용만(의주)에서의 제영 역시 당시의 성대한 일이었으니, 퇴도 노선생께서도 그 사실을 서문으로 기록하시고 또 시로 화운하여 그 뜻을 널리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겠는가. 불행히도 1592년과 1593년 왜란의 병화로 인하여 병풍은 이미 전하지 않고, 시도 산락되고 말았다. 오직 임당의 시 한 구절만 겨우 남았으니, 자손으로 감회가 어찌 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퇴계] 노선생의 서문과 시를 판각하여 문 위에 걸고, 임당의 시를 덧붙이는 것은 후손들로 하여금 그날의 자취를 고험할 바가 있게 하여 상상과 사모하는 마음을 담을 장소로 삼고자 할 따름이다. 임술(1742년) 9월 초하루 현손 영(泳)이 삼가 쓰다.[37]

---

35 李滉, 『退溪集』 권5, 「題柳彦遇河隈畫屛【幷序】」와 양진당 대청에 걸린 편액과 비교할 때 다르게 판각된 부분이 확인된다. 퇴계 선생의 시 제1수에 첫째 구의 '詠'이 '切'로, 셋째 구 '無'가 '難'으로, 다섯째 구 '舍'가 '社'로, 여섯째 구 '幾'가 '獨'으로 새겨져 있다.

36 류영의 자는 덕유이고, 호는 양진당이다. 그는 현감을 지낸 柳世哲(1627~1681)의 증손이고, 부친은 柳聖臣이다. 그는 문중 사업에 힘써 거듭되는 병란으로 유실되고 흩어진 겸암 김운룡의 유고를 모아 『겸암문집』을 편찬하고, 1757년 퇴락한 겸암정사를 중수했으며, 『풍산류씨족보』를 처음으로 편찬 간행한 인물이다. 1728년 호서지방에서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규합하여 출진했다. 李象靖, 『大山集』 권44, 기, 「겸암정기【정축】」.

37 養眞堂 대청 벽면 현판 부분, "定州畵屛 實出寄懷之深意. 龍灣題詠 亦爲一時之盛事 況退陶老先生又爲之序其事 和其韻 以鋪張之乎? 不幸値壬癸兵燹 屛旣不傳 詩又散落 惟林塘詩一聯僅存 子孫之感 焉得已也. 老先生序若詩玆 鏤板揭楣 獨以林塘詩附焉. 使後嗣人庶有所考驗於當日遺跡 而爲想像寓慕之地云爾. 壬戌九月初一日 玄孫泳謹書"; 양진당 대청에는 「養眞堂記」 기문과 「河隈十六景」 시판도 함께 걸려 있다.

류영의 발문에 따르면, 풍산 류씨 집안에 소장했던 하외도 병풍이 임진전쟁의 병화로 모두 소실되었지만, 퇴계 이황의 서문과 시, 임당 정유길의 시를 판각해 걸어 후일 자손들이 당시 자취를 살필 수 있게 하여 사모하는 대상으로 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경위를 밝혔다. 이는 병풍이 상징하는 바가 풍산 류씨 집안에서는 가훈으로 내려오는 효의 상징이자 퇴계의 학맥과 임당 가문과 풍산 류씨 가문의 인연을 상징하는 매개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하외팔곡도》와 영남 학맥의 현창

인조반정 이후 중앙 정계에서 배제된 영남 남인은 중앙 정치의 외연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이원익·조경·허목·오광운·채제공 등 중앙의 남인과 정치적 연대를 추진했다. 특히 정조 연간 채제공은 영남의 인사를 발탁하여 중앙 정계에 진출시켰고, 증직과 증시, 원사 건립, 문집 간행 등을 통해 영남 남인 세력의 재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38]

그러나 1799년 정월 채제공이 사망하고 1800년 정조까지 서거하자 순조가 즉위하면서 영남 남인 세력은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고, 안동 지역에서도 신흥 노론이 중앙의 지원을 받으면서 세력을 확장했다. 영남 남인계인 풍산 류씨는 겸암과 서애 후손을 중심으로 퇴계학을 가학으로 계승했다. 특히 겸암의 7대손 류일춘(柳一春, 1724~1810)이 향촌의 공론을 주도하며 영남 남인에 대한 노론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풍산 류씨의 정치적 관계망은 다소 위축되었다. 1810년 류일춘이 사망하자 서애의 8대손 류이좌(柳台

38 1792년 도산서원에서 별시를 치르게 하고, 급제자의 방목과 과문을 모은 『교남빈흥록』을 간행한 것도 그의 영향력이 컸다. 김명자, 「순조 재위기(1800~1834) 河回 豊山柳氏의 현실 대응과 관계망의 변화」, 『국학연구』 29(2016), 81~97쪽.

佐, 1763~1837)와 그의 종형 류상조(柳相祚, 1763~1838)가 문중 및 향촌 활동의 전면에 나섰다. 풍산 류씨는 중앙 정계와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며 퇴계학을 가학으로 계승하면서도 도덕적 실천과 사회적 실현에 집중하여 충효를 강조했고, 과거와 사환(仕宦)을 통한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통해 영남의 고립을 극복하려 했다.[39]

1. 병풍의 제작 배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하외팔곡도》 병풍은 1828년 이의성(李義聲, 1775~1833)이 안동 풍천군 하회마을에서 용궁현 지보리에 이르기까지 낙동강 물줄기와 인접한 영남 사족의 세거지와 주요 사적을 묘사했다. 각 화폭은 낙동강의 흐름을 중심에 두고 주변 산세와 주요 경물을 19세기 전반 유행한 수묵 위주의 남종산수화법으로 묘사했다.[40] 제8곡에 "1828년 초가을 학림관에서 삼가 그려 해산정 주인의 교정을 받다. 청산류수관거사 이의성[戊子新秋 謹寫于鶴林館 恭敎海山亭主人鑒正. 靑山流水觀居士 李義聲]"이라고 묵서되어 1828년 초가을에 그린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해산정 주인은 해산정이 소재한 고성군수 류철조(柳喆祚, 1771~1842)로 추정된다. 병풍의 제1폭에는 1568년 이황의 서문과 시문, 정유길의 시문을 옮겨 쓰고, 제10폭에는 1829년 봄에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이 쓴 발문이 있다. 병풍에 이황과 정유길의 글을 옮겨 쓴 것은 1568년 그려진 병풍을 전범으로 삼았음을 의미

---

39 19세기 풍산 류씨의 소과 합격자는 44명, 대과 합격자는 15명이고, 그중 류후조는 좌의정까지 올랐다. 위의 글, 100~101쪽.

40 병풍의 제작 배경과 화풍 분석은 강경원, 앞의 글(2023), 79~84쪽 참조. 정원용의 서문은 필자가 재수정했으며, 회화사적 화풍 분석은 선행 논문에서 충분히 진행되었기에 본문에서는 논외로 한다.

하는 것이기도 하다. 류철조는 선조가 제작한 하외도를 보지 못했으나, 낙동강 물굽이 상하류 일대를 그린 류중영의 전례에 따랐다. 이 작품은 정원용과 류철조의 집안에서 보관하기 위해 그린 2점 중 풍산 류씨 가문에서 소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풍 제10폭에 정원용의 발문에 그 제작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원용이 과거에 임금께 휴가를 청하여 순흥부(順興府)의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이어 용궁현 지보리의 선영에 성묘했다. 돌아오는 길에 종중 사람들과 안개 낀 삼나무와 이슬 맺힌 잣나무 사이에서 정회를 펼치다 자연스럽게 조상에 대한 추원(追遠)과 근본을 돈독히 하는 진심이 절로 우러났다. 또한 안동의 하외로 길을 돌려 입암 선생[류중영]의 옛 거처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입암 류공은 선조연간 명신으로 국운이 위태로울 때 사방으로 힘을 다하셨다. 또한 아들 서애공은 중흥시킬 대책을 보좌한 공훈이 공신각에 빛날 만큼 세상에 명문이 되었다. 지금 그 자손들이 대대로 모여 살고 있어 집의 서까래가 서로 이어지고 남녀가 각자 일을 업으로 삼아 글 읽고 실 잣는 소리가 들렸다. 아름다운 법도와 훌륭한 행실은 경상우도의 긍지와 법식이 되니, 배회하며 찬탄하였고 늘 마음에서 잊을 수 없었다.

십여 년 후 관동을 순찰하러 나갔는데 고성군수 류철조가 원용에게 말하길, "나의 선조 입암공이 정주목사로 계실 때 '하외도'를 그려 병풍으로 만들어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담으셨습니다. 그때 임당공[정유길]이 사신을 맞는 영위사로 왔다가 마침 이 병풍을 보시고 제영했는데, '함께 수레를 탄다[同駕鹿車].'는 구절이 있고, 퇴계 선생도 서문을 쓰셨으니 진실로 성대한 자취였습니다.

그러나 병풍이 병화로 전하지 않아 늘 한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 그 시문을 베껴 써서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 주려 하니 그 또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가에서 소중히 간직하여 숭모하는 마음을 담고 양가의 우호를 맺는다

면 또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원용이 답하길, "진실로 아름답습니다."라고 했다.

흡곡현령 이의성이 글씨와 그림에 능하여, 2벌을 그리게 하여 병풍으로 꾸몄다. 아! 요즘 사람들도 선현이 살던 고향과 친필 진적에 대해 들으면 누구나 찾아보고 싶어 하지 않은 자가 없거늘, 하물며 자손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입암공과 임당공 두 분의 문행과 덕망이 성대하여 사람들이 모두 경모하거늘, 하물며 자손된 자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지금 이 그림을 보니 하회와 지보리 두 마을의 초목과 운연의 색채가 푸르게 어우러져 서로 바라보고 있다. 선조가 소요하던 곳과 묘소도 있어 조석으로 성묘하던 것이 완연하다. 자손들이 출사하여 임금을 섬김에 선조(先祖)께서 왕실을 위해 힘쓴 일을 본보기로 삼고 집에 들어와서는 선조가 드러내 보이신 독실한 행의를 법도로 삼으며, 항상 눈에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병풍은 장차 가승된 선첩(先牒)과 함께 전하리니 어찌 경모하지 않으리오. 『시경』에 이르길, "높은 산을 우러르고 큰길로 나아간다." 했고, 또 이르길, "뽕나무와 가래나무만 보아도 반드시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했으니 바라건대 이 뜻을 자손에게 일러주노라. 금상 29년 기축(1829) 봄, 임당의 9세손 가선대부 이조참판 동지경연 춘추관사 예문관제학 규장각직제학 세자우부빈객 정원용이 삼가 발문을 쓴다.[41]

---

41 《하외괄곡도》 병풍 제10폭 정원용의 발문, "元容往年請恩暇 省親于順興府 仍歷展于龍宮 知保先墓. 退與諸宗人叙情於杉煙栢露之間 油然有追遠敦本之誡. 又轉之安東之河限 眺覽立巖舊居. 立巖柳公以宣廟名臣 當國步艱難 宣力四方. 又有子西厓公 贊中興大策 勳烈耀丹靑 爲世名門. 今其子孫世世聚居 屋椀相連 男女各執業 絃誦紡績之聲相聞也. 懿範嘉行 爲嶠右所矜式 徘徊嗟歎 常在心不能忘. 後十餘年 出按關東省 高城柳侯喆祚謂元容曰 吾先祖立巖公在定州日 畵河限圖 作屛風 寓鄕園之思. 時林塘公以儐使往會見是屛 爲之題咏 有同駕鹿車之句. 退陶老先生又爲之序 誠盛蹟也. 畫屛因兵燹失傳 常恨之. 今欲模其圖繪 寫其詩文 以爲子孫觀 其亦有意乎? 俾兩家雲仍各寶藏之 因以寓慕而講好 不亦美乎? 元容作而對曰 誠美矣哉. 歙谷李侯義聲善筆藝 仍囑寫二本裝成之. 嗟乎! 今人聞先賢之所居之鄕里 翰墨之眞蹟 莫不欲訪問而就見之 況其子孫者之心乎? 立巖 林塘兩公之文行德望之盛 夫人皆敬慕之 況其子孫者之心乎? 今見是畵

입암 류중영의 9세손 류철조가 강원도 고성군수로 재임할 때 정유길의 9세손인 강원도관찰사 정원용을 만났다. 류철조가 고성군수로 재직한 시기는 1825년부터 1830년 11월 사이고,[42] 정원용의 강원도관찰사 재임시기는 1826년 3월경부터 1828년 8월 19일 이전으로 추정된다.[43]

4정원용은 순조대 한림직을 수차례 맡았으며, 선조 정유길과 깊은 인연이 있던 김상헌의 후손 김조순을 비롯한 이만수·남공철·심상규·서영보 등과 『홍재전서』 교정에 참여하면서 심교했다. 그는 이들의 도움으로 중앙 정계의 요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44]

그림을 그린 이의성은 조선 후기 대표적 문인화가로[45] 그의 시문집 『청류만록(淸流漫錄)』에 따르면, 강원도 흡곡현령으로 재임한 기간인 1826년 가을 강원도관찰사 홍경모와 고성군수 류철조 등과 함께 외금강 신계사에서 5리 떨어진 오선암(五仙嵓)을 방문하여 『오선암시화첩』을 남겼고, 1828년 3월에

則河保兩里 草樹雲烟之色 蒼蔚相望 而先祖杖屨之所 衣履之藏 怳然如晨夕展省者. 然使爲子孫者 出而事君 則以先祖之勤勞王室爲則 入而處家 則以先祖之篤著行誼爲法. 常常存之於目 而思之於心 則是屛也 將與家乘先牒而並傳矣 可不敬歟. 詩曰 高山仰止 景行行止. 又曰 維桑與梓 必恭敬止. 請以是詔子孫焉. 上之二十九年 己丑春. 林塘九世孫 嘉善大夫吏曹參判 同知經筵 春秋館事藝文館提學 奎章閣直提學 世子右副賓客 鄭元容 謹跋." 밑줄은 필자 강조.

42 유철조의 증조부는 柳成和(1668~1748), 조부는 柳澤(1701~1786), 부친은 柳師春이다. 1795년 사마시에 합격했고, 1804년 온릉참봉, 1807년 금부도사, 1808년 掌苑別提, 1809년 문의현령, 1823년 연기현감 등을 거쳐 1825년부터 1830년까지 고성군수를 역임했다. 『承政院日記』 純祖 25년(1825) 12월 28일; 『承政院日記』 純祖 30년(1830) 11월 17일; 류철조는 이후 1831년 병산서원 원장을, 1832년에는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했다. 김명자, 「조선 후기 병산서원 원장 구성의 시기별 양상」, 『한국서원학보』 6(2018), 20쪽, 〈표8〉 참조.

43 『承政院日記』 純祖 27년(1827) 3월 15일; 『承政院日記』 純祖 28년(1828) 8월 19일.

44 정원용은 김조순의 아들인 김좌근의 부탁으로 『풍고집』의 발문을 써 주기도 했다. 심상규는 『순조실록』의 총재관으로, 정원용은 교정 당상으로 편찬에 참여 우의를 유지했다. 권은지, 「정원용의 사환기 교유 관계 연구」, 『고전과해석』 33(2021), 271~302쪽.

45 이의성은 1804년 청나라 사행 후 1807년 진사시에 합격했고, 장수현감(1821년 12월~1825년 7월), 흡곡현령(1825년 7월~1830년 7월), 온양군수(1833년 3월~1833년 11월) 등 지방관을 역임했다.

는 강원도관찰사 정원용과 고성군수 류철조와 함께 외설악에 있는 신흥사를 방문했다.[46] 이런 인연으로 류철조가 1828년 가을에 《하외팔곡도》를 이의성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정원용의 선영은 경상도 용궁현 지보리에 있었는데, 하회와 멀지 않아 지나는 길에 입암정사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류중영에 대해 선조 연간 명신으로 국운이 위태로울 때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했는데, 사실 류중영은 명종 연간 주요 관직을 역임했다. 특히 평안도감군어사, 의주목사, 정주목사, 황해도관찰사 등 주로 서북지역의 지방관을 지내 변방 정세와 대외적 실무에 조예가 깊었다.[47] 『명종실록』에서 사관은 류중영에 대해 강직하고 명철하여 번거로운 일을 능숙히 처리하는 재주가 있어서 정치를 잘한다는 명성을 얻었다고 평가했다.[48] 특히 1566년에는 정주목사로 부임하여 퇴계 이황의 『주자서절요』를 간행해 보급했는데, 이는 이황에 대한 학문적 계승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49]

한편, 정원용은 서애 류성룡에 대해 나라를 중흥시킬 대책을 이끈 공훈으로 공신각을 빛내 명문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1607년 6월 류성룡이 별세한 후 선조가 예조 관원에게 보낸 어제 치제문에서 종계변무 해결에 큰 공을 세우고,[50] 임란의 현장에서 그의 노고를 치하하며[51] "임금의 덕을 보완하면서 하

---

46 『五仙峀詩畵帖』은 柳喆祚·李義聲·曺錫龜·韓瑛·任泰濬이 오선암에서 쓴 시와 그림을 모아서 엮은 제영첩이다. 이의성의 생애와 관련 시문집에 대해서는 김영진, 「청류관 이의성의 생애와 시문집」, 『한문학보』 19-1(2008), 853~873쪽 참조.

47 류중영의 생애는 이영춘, 앞의 글(2005), 151~152쪽 참조.

48 『明宗實錄』 8년(1553) 9월 26일.

49 퇴계는 류중영이 有定書院 건립을 주선한 것을 높이 평가했고, 두 아들 류운룡과 류성룡을 퇴계 문하에 보내 수학하게 하여 학문적 관계를 유지했다. 김학수, 앞의 글(2014), 68~69쪽.

50 류성룡은 1590년 宗系辨誣와 관련하여 외교문서의 제술에 참여하여 光國功臣 3등에 책록되어 『光國功臣會盟錄』(1590)과 『十二功臣會盟祭文』(1590)에서 확인된다.

51 『西厓先生年譜』 권2, 萬曆 22년(1594); 『淸難原從功臣錄券』(1605), 충효당 소장. 임란 때

늘이 할 일을 경이 대신했도다. 이에 내가 그대를 가상히 여기나니 경의 독실함을 잊지 못하노라."라고 했던 대목에서도 잘 나타난다.[52] 이를 통해 류중영과 류성룡 부자 이후 풍산 류씨 가문은 영남의 명문가로 거듭났음을 밝혔다.

정원용의 발문에서는 특히 양가 선조들의 옛일을 떠올리며 그림과 시를 합쳐 병풍으로 꾸민 정황을 상세히 기록했다. 고성군수 류철조는 강원감사 정원용을 만났을 때, 자신의 선조 류중영이 정주목사로 재임 시에 하외도 병풍을 만들어 정원용의 조상인 정유길이 이 병풍을 보고 제시를 남겼고 퇴계 이황이 서문과 제시를 썼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그 병풍이 임란 때 병화로 소실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정원용에게 그림을 새로 그리고 옛 시문을 옮겨 써서 후손이 볼 수 있게 하려는 의지를 밝히며 양가의 가보로 전하게 한다면 조상을 숭모하는 마음과 양가의 우호를 기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53] 이에 정원용은 병풍과 기록을 가승함으로써 선조의 독실한 행의를 법삼아 경모하는 근거로 삼도록 하외도 병풍 2본을 제작하여 양가에서 보관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하외팔곡도》는 도산서원부터 낙동강을 따라 하회마을을 포함한 영남 사족의 주요 터전을 각 화폭에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배치했고, 퇴

는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하며 평안도 도체찰사로 명군의 지원 업무를 맡았다. 1593년 삼도도체찰사에 임명되었으며, 이순신과 권율을 천거하는 등 1598년 탄핵되기 전까지 임란을 극복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여 1604년 10월 호성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그 외에도 1596년 임란 중 李夢鶴(?~1596)의 난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워 1605년 4월에는 淸難原從功臣에도 책록되었다. 김경수, 「임진왜란 기 '이몽학의 난'에 대하여」, 『한국사학사학보』 46(2022), 131~159쪽.

52 「선조치제문」, 국립중앙박물관(편), 『하늘이 내린 재상, 류성룡』(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 136~141쪽.

53 『풍산류씨세보』에 따르면, 풍산 류씨와 동래 정씨 양가의 상호 혼인 관계는 18세기 이후 19회, 19세기에는 36회로 증가했다. 김명자, 「조선후기 안동 하회의 풍산류씨 문중 연구」, 경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2009), 71~86쪽.

계의 서문과 제시가 함께 기록되어 퇴계 학맥을 이은 영남의 사족에게도 학통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다. 병풍 제작을 주선한 류철조와 종형제인 류이좌는 1832년 9월 중양절에 안동 김씨 가문의 충청감사 김양순(金陽淳, 1776~1840), 안동부사 김정균(金鼎均, 1782~1847)과 함께 안동의 옥연에서 배를 탔고, 이때 김정균이 과거 정유길의 하외도 관련 시에 화운하여 하외도 시화는 지역 사족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54]

2. 병풍에 그려진 영남 사족의 세거지와 주요 사적

임란 이후 조선은 내적 당파 간 극심한 대립 과정에서 중앙과 향촌이 분리되면서 향촌을 중심으로 활동한 풍산 류씨를 비롯한 재지 사족들이 전란으로 흐트러진 향촌 질서를 복구하고 향촌 내에서 가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선조의 업적이나 영향력 있는 인물과의 학맥을 강조하는 것이 유효한 수단이 되었다.[55] 따라서 하외를 구성하는 경관 요소들은 이 지역 사족의 사회적 관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경관은 각 사족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되고, 그 의미를 구성하는 담론의 생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56] 하외의 영남 학맥 또는 혼맥으로 연결된 예안현, 안동부, 용궁현의 주요 사족으로는 예안에 세거하는 영천 이씨와 진성 이씨,

---

54 柳台佐, 『鶴棲文集』 권1, 詩, 「壬辰重陽節 金方伯 陽淳 金明府 鼎均 同舟臨賞玉淵 明府次贈鄭林塘河回圖韻 敬次以呈」; 류이좌는 서애의 8대손으로 부친은 류사춘이며 백부 류종춘에게 수학했다. 그는 번암 채제공의 문인이었고, 1793년 정시에 합격하여 초계문신을 지냈다. 류이좌의 생애와 학문에 대해서는 김수현, 「鶴棲 柳台佐의 삶과 문학」, 『동양학』 64(2016), 2~15쪽.

55 신소윤, 「『하회십육경』과 『하회구곡』의 공간 형성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89(2021), 84~84쪽.

56 권선정, 앞의 글(2003), 163~175쪽.

안동에 세거하는 풍산 류씨·안동 김씨·안동 권씨·의성 김씨·광산 김씨·순천 김씨·진성 이씨, 용궁현에 세거하는 동래 정씨 등을 들 수 있다.[57]

이의성의 《하외팔곡도》 병풍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예안현의 농암 이현보와 퇴계 이황과 관련한 사적, 풍산 류씨의 세거지인 안동부 풍산현의 하회마을뿐만 아니라 수동의 풍산 류씨 재실, 퇴계의 제자인 학봉 김성일과 송암 권문호의 학문 공간, 퇴계의 제자 한강 정구의 문인 이돈(李燉, 1568~1624)의 진성 이씨 세거지인 마애리와 후학 양성 공간인 이로당과 산수정, 그리고 김종직의 문인 김용석이 정착한 순흥부 용궁현의 구담마을, 정유길의 후손 정영방의 동래 정씨 세거지인 지보리와 불천위 사당 등이 포함되었다. 대개 예안과 안동을 가로지르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황의 학문 사상을 계승한 퇴계 학맥과 혼맥으로 연결된 지역 사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표1).

병풍의 화면 위 화제에 근거하여 각 화폭에 묘사된 주요 지명을 조선 후기 군현지도를 통해 고증해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2).[58] 제1곡 〈도산서원〉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우측 하단에 애일당과 그의 학덕을 추모하는 분강서원을, 좌측으로 석간대 비문의 비각이 보인다(그림2-1). 하단 좌측에는 예안 읍치의 성곽과 촌락이 묘사되었다. 이곳을 제1곡으로 정한 이유는 1574년 퇴계의 학문적 근거지인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그의 학덕

---

57 이수건, 『영남학맥의 형성과 전개』(서울: 일조각, 1995), 69~71쪽, 〈표 2-2〉 조선 후기 경상도 지방의 대표적 명문과 거주지; 16~19세기 안동의 풍산 류씨와 혼인한 성씨 중 안동 권역에 세거한 성씨로는 안동 권씨, 진성 이씨, 의성 김씨, 안동 김씨, 광산 김씨, 순천 김씨, 남양 홍씨, 풍산 김씨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김명자, 앞의 글(2009), 71~81쪽.

58 선행논문에서는 이 병풍을 명승명소도로서 세거지를 그린 것으로 간주했고 1~3곡, 5곡을 안동의 명소로, 4곡과 6곡을 풍산 류씨 세거지로, 7~8곡을 동래 정씨 세거지로 구분하여 화폭별 시각화 양상을 분석했다. 강경원, 앞의 글(2023), 89~100쪽.

표1-《하외팔곡도》의 구성 및 주요 지명과 사적

병풍 순서	팔곡 순서	화제 및 서발문	세부 내용	비고
1		李滉, 題河隈畵屛竝序	李滉의 서문과 시, 鄭惟吉 시	1829년 鄭元容 摹書
2	1	陶山書院	예안현 읍치와 향교, 청량산, 이현보 사적: 愛日堂, 汾江書院, 이황 사적: 陶山書院, 石澗臺 비문	예안현(현재 안동시 도산면) 소재, 농암 이현보와 퇴계 이황 관련 사적 등 영남학파의 학맥의 연원을 보여 주는 장소
				이의성의 백문타원인(靑山流水觀主人)
3	2	安東府治	안동부 부치: 향교, 望湖樓, 객사, 慕恩樓, 관왕묘, 安奇驛, 映湖樓, 浦頭津	안동부 유림의 공론 중심지인 향교와 治所가 있는 행정중심지, 퇴계의 문인 김우옹, 김늑, 정구 등이 府使 역임
4	3	石門亭	김성일 사적: 石門精舍, 권호문 관련 사적: 靑城書院, 鳶魚軒	안동부 풍산현(현재 풍산읍 막곡리) 소재, 퇴계 문인 학봉 김성일과 송암 권호문의 학문 수양과 후학 양성 공간
5	4	壽洞	壽洞의 류성룡 묘, 재실 霜露齋, 林藪	안동부 풍산현 수동(현재 풍산읍 수리) 소재, 퇴계 문인 서애의 묘소 및 재실
6	5	輞川	김낙행 사적: 망천묘, 적벽삼봉 이돈 사적: 마애리 怡老堂과 山水亭, 진천 이씨 세거지	안동부 풍산현(현재 풍산읍 마애리) 소재, 낙동강 변 마애리 퇴계학맥을 이끈 김낙행의 묘지, 퇴계의 제자인 한강 정구의 학인 이돈의 세거지와 후학 양성 공간
7	6	河回	풍산 류씨 세거지: 병산서원, 옥연정사, 겸암정사, 원지정사, 빈연정사 양진당, 충효당, 상봉정, 입암, 만송정숲, 부용대	안동부 풍천면(현재 풍천면 전서로) 소재, 풍산 류씨 동족마을과 후학양성 공간
8	7	九潭	안동부 풍서면 광덕리, 화산, 구담, 구담마을 金用石 사적: 광산 김씨와 순천 김씨 세거지	용궁현(현재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소재, 김종직 문인 金用石(1453~1523)의 광산 김씨와 순천 김씨 세거지
9	8	知保	비봉산, 정원기 사적: 불천위 사당, 정영방의 동래 정씨 세거지, 知保齋	용궁현(현재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소재, 공신 정원기의 불천위 사당, 서애의 고제 정경세의 문인 정영방의 동래 정씨 세거지
				이의성 관지: 戊子(1828)新秋, 謹寫于鶴林館, 恭敎海山亭主人鑒正. 靑山流水觀居士 李義聲 백문방인: [李義聲印] [季鳴]
10		跋文	정원용 발문	上之二十九年己丑(1829)春 林塘九世孫 … 鄭元容謹跋

그림2-이의성 그림(1828), 정원용 외 서발문(1829), 《하외팔곡도》, 10폭 병풍, 각 폭 130×59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을 기리고 영남학맥의 원류를 보여 주기 위함으로 보인다.[59]

석간대에는 퇴계가 1562년 제자인 경주부윤 이정(李楨, 1512~1571)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당나라 류상(劉商)의 시구를 새긴 바위가 있다.[60] 한편 애일당은 1533년 이현보(李賢輔, 1467~1555)가 94세의 부친 이흠(李欽)과 92세의 숙부, 82세의 외숙부 김집(金緝)을 중심으로 구로회(九老會)를 만들어 분천(汾川) 가에 지은 경로당이며, 분강서원은 1613년 지방유림의 공의로 이현보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서원이다. 이현보는 퇴계의 숙부 이우(李堣)와 동반 급제했고, 퇴계의 동향 선배로 편지와 시문을 왕래하며 강호지락(江湖之樂)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제2곡 〈안동부치〉는 안동 유생들의 공론을 형성하는 주요 장소인 향교가 있는 곳이다(그림2-2). 안동향교는 1567년 부사 윤복(尹復, 1512~1577)이 명륜당을 10칸, 동서재를 각 5칸, 입구 누대를 9칸 규모로 중건했다.[61] 퇴계의 제자로 안동부사를 역임한 인물 중에는 안동과 예안에 본관을 둔 김우옹(金宇顒, 1587), 김륵(金玏, 1604)과 정구(鄭逑, 1607) 등이 있다. 부치 내에는 망

59 유재빈, 앞의 글(2006), 204쪽.

60 劉商, 『全唐詩選錄』 권26, 「送王永二首」.

61 尹復, 『杏堂遺稿』 권1, 「鄕校重修記文」.

그림2-1-《하외팔곡도》 병풍,
제1곡 〈도산서원〉 세부, 국립중앙박물관

그림2-2-《하외팔곡도》 병풍,
제2곡 〈안동부치〉 세부, 국립중앙박물관

호정과 진영, 객관 등이 있다. 안동 부치의 북쪽으로 3리 떨어진 안기역은 경상도의 속역(屬驛) 10개소를 관할했다.[62] 남문 밖 관왕묘는 1598년 정유재란 때 안동에 주둔한 명나라 장수 설호신(薛虎臣)이 건립한 관우의 사당이다.[63] 부치의 서쪽 5리 거리에 세운 모은루는 조선 세조 때 한치의(韓致義)가 안동 출신 도순찰사 권반(權攀)이 누 이름과 기문을 지었다. 낙동강가의 영호루는 고려 공민왕이 1366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안동에 몽진했을 때 군사 훈련을 참관하고 배로 유람하던 곳이었다. 환도 후 1367년 공민왕이 하사한 영호루 현판을 하사하자 안동판관 신자전이 누의 위치를 낙동강가로 옮겨 확장 중수하여 걸었다. 1488년 부사 김질이 중수하고, 수차례 복원을 거쳐 1820년

6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4, 경상도, 安東大都護府, 【역원】 安奇驛.
63 『新增安東府輿地誌』 권24, 경상도, 安東大都護府, 「관왕묘」.

그림2-3-《하외팔곡도》 병풍,
제3곡 〈석문정〉 세부, 국립중앙박물관

그림2-4-《하외팔곡도》 병풍,
제4곡 〈수동〉 세부, 국립중앙박물관

안동부사 김학순이 누를 중수하고 '낙동상류(洛東上流)'와 '영좌명루(嶺左名樓)'라는 현판을 누 안에 걸어 낙동강 상류의 명소임을 알 수 있다.[64]

제3곡 〈석문정〉은 퇴계의 제자 학봉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이 1587년 지은 석문정사와 송암 권호문(權好文, 1532~1587)의 위패를 봉안한 청성서원을 중심으로 일대 산수를 묘사했다(그림2-3). 석문정은 안동부의 서쪽 청성산에 위치한 정사로 그 서쪽에 돌 두 개가 마주 바라보며 서 있는데, 골짜기가 훵하니 뚫려 문과 같다 하여 '석문(石門)'이라 했다. 학봉은 이 정사를 경영하며 후진을 양성했다.[65] 청성서원은 1608년 권기(權紀, 1545~1624) 등 안

64 1547년과 1605년, 1775년, 1792년에 홍수로 유실되자 1552년과 1676년, 1788년, 1796년 각각 복원했다.

65 金誠一, 『鶴峯全集』 부록, 권1, 연보, 萬曆 15년(1587).

동 사림의 발의로 권호문을 향사하는 사당으로, 1612년에 위패를 봉안했고 1767에 서원으로 승격되었다.[66] 권호문도 퇴계의 문인으로, 학봉과 서애와의 교분이 깊었고 학행을 높이 평가받았다. 1680년 겸암 류운룡의 증손 류세명(柳世鳴, 1636~1688)이 권호문의 『송암집』 발문을 지었고, 1679년 류원진(柳元振)이 청성서원의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67] 연어헌(鳶魚軒)은 권호문이 1566년 청성산 아래 낙동강 가에 세워 만물의 이치를 관찰하여 '연비어약(鳶飛魚躍)'에서 이름을 따와 유유자적하며 근심을 잊었던 곳이다.[68]

제4곡 〈수동〉은 퇴계의 고제 류성룡의 묘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수동(壽洞)에 지은 재사(齋舍)를 중심으로 묘사했다(그림2-4). 1611년에 승려 포우(浦右)의 도움으로 재사를 짓고 '상로재(霜露齋)'라는 현판을 달았다.[69] 수동은 풍산 들판의 서북쪽을 호선으로 감싸고 있는 산자락 끝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수동 뒷산에 서애 류성룡의 묘소와 풍산 류씨 수동 재사는 류성룡의 묘소와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떨어져 각각 다른 산록에 자리 잡고 있다.[70]

제5곡 〈망천(輞川)〉은 안동부 풍산읍 마애리의 앞쪽에 낙동강이 동쪽에서 서북으로 마을을 감싸듯이 흐르는 모습이 당나라 왕유의 은거산장인 망천을 닮아서 지어진 지명이다(그림2-5). 망천에는 권만(權萬), 이상정 등과 친교하며 서애 이후 영남사림에서 퇴계학맥을 이끈 김낙행(金樂行, 1708~1766)의 묘지가 있었다.[71] 망천 건너편 기슭에는 적벽 삼봉이 병풍처럼 펼쳐져 절경을 이룬 가운데 바위에 부처의 모습을 새긴 마애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있

---

66 洪汝河, 『木齋集』 권8, 「松巖先生權公行狀」.

67 權好文, 『松巖集』, 柳世鳴, 「발문」.

68 權好文, 『松巖集』 권5, 「鳶魚軒記」; 『松巖先生年譜』 中宗 21년(1526).

69 柳初, 『柳川先生遺稿』, 「霜露齋記」.

70 權好文, 『松巖集』 권5, 書, 「答西厓書」.

71 蔡濟恭, 『樊巖集』 권50, 묘갈명, 「九思堂金公墓碣銘」.

그림2-5. 《하외팔곡도》 병풍,
제5곡 〈망천〉 세부, 국립중앙박물관

그림2-6. 《하외팔곡도》 병풍,
제6곡 〈하회〉 세부, 국립중앙박물관

어서 마을 이름을 '마애(磨崖)'라 했다. 또한 마애리 일대 이돈의 이로당이 있다. 이돈의 고조 이홍양부터 마애리에 입향하여 세거했다. 그는 퇴계 이황의 제자인 한강 정구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이로당은 그가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마애리로 돌아와 후학을 양성하기 위하여 1612년 산수정(山水亭)과 함께 건립한 정사로 마애리 우측 가장 높은 곳에 남서향으로 위치했다.[72]

제6곡 〈하회〉는 풍산 류씨의 세거지인 하회마을과 그 일대를 그린 것이다(그림2-6). 하회마을 내에는 양진당, 충효당, 양오당(養吾堂), 류운룡의 서재 빈연정사, 류성룡이 낙향하여 1573년 건립한 원지정사 등이 중심을 이루고,

72 1601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사헌부지평, 예조정랑을 지냈으나 영해부사로 좌천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학문에 정심하고 후학 양성에 힘썼다.

낙동강 건너편에는 겸암정사와 옥연정사, 화천서당과 병산서원 등이 있었다. 겸암파와 서애파의 사회적 관계를 상징하는 양진당과 충효당 등 풍산 류씨 종택이 하회마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양진당은 입향조인 서애의 6대조 류종혜가 하회에서 처음 자리 잡은 곳으로 풍산 류씨 대종택이자 겸암 류중영의 종택이다. 충효당은 류성룡의 종택으로 양진당과 골목을 사이에 두고 옆에 자리 잡았다. 양오당은 서애의 증손 류만하가 충효당에서 분가할 때 지은 집이고, 후에 그의 아들 류후장이 증축하여 그의 호를 딴 명칭이다. 부용대는 하회마을 강 건너편 절벽으로 하회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 승경 중 하나다. 특히 겸암정사 앞에는 입암이 위치했는데, 큰 바위와 작은 바위가 있어 형제바위라고도 했다. 입암은 류중영의 호였으며, 이 형제바위는 그의 아들인 류중영과 류성룡의 형제애를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따라서 입암을 통해 가학의 문호를 연 류중영과 류운룡, 류성룡 부자를 투영시킴으로써 입암을 도학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된 곳으로 형상화하기도 했다.[73]

화천은 화산 앞을 흐르는 하천으로 화천 인근에 세워진 화천서원은 1786년 지역 유림의 공의로 류운룡과 류원지, 그리고 류성룡의 문인 김윤안(1560~1622)의 위패를 모셔 그들의 학덕을 추모했다. 병산은 낙동강이 서남쪽으로 흘러 하회 일대에서 휘돌아가는 첫머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류건춘은 병산에서부터 낙동강으로 흘러 병암에 이르는 물의 흐름을 가학에 비유하기도 했다. 병산서원은 1607년 서애의 고제 정경세가 존덕사를 창건하고, 류성룡을 기리기 위한 위패를 봉안했다. 그 후 류성룡의 삼남 류진이 추가 배향되었다.[74]

---

73 안병걸, 앞의 글(2018), 155~184쪽.

74 병산서원은 1572년 현재의 자리로 옮겼으나 임란 때 화재로 소실되었다. 1607년 풍악서당으로 중건될 때는 강당 공간과 고직사만 서당으로 재건되고 1614년 정경세 등 후학들

그림2-7. 《하외팔곡도》 병풍,
제7곡 〈구담〉 세부, 국립중앙박물관

그림2-8. 《하외팔곡도》 병풍,
제8곡 〈지보〉 세부, 국립중앙박물관

제7곡 〈구담〉은 광덕창과 안동부 풍서면이 화면의 중심을 이루며 낙동강의 지류인 구담강을 경계로 용궁현에 소재한 광산 김씨 세거지인 구담마을이 하단에 묘사되었다(그림2-7). 구담의 입향조 김용석(金用石, 1453~1523)은 점필재 김종직의 문인으로, 1498년 무오사화 때 출사의 뜻을 접고 예조참의 김유온(金有溫)의 손서가 되어 구담촌에 정착했다.[75] 이후 구담은 순천 김씨와 광산 김씨의 세거지가 되었다. 김유온의 맏아들 김황(金篁)과 일곱

이 존덕사를 건립하여 서애의 위패를 안동 여강서원으로 옮겼다가 1629년 병산서원으로 복향했고, 이때 서애의 아들 류진을 배향했다. 1864년 사액서원으로 승격되어 존속되었다. 박현아·윤재은, 「병산서원에 나타난 현상학적 공간 특성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2(2019), 109~110쪽.

75 李象靖, 『大山集』 권44, 記, 「潭巖金公遺墟碑閣記」.

째 아들 김호(金澔)가 구담에 세거했다. 넷째 아들 김주(金籌)는 안처정(安處貞)의 사위가 되어 와룡면 가구리에 정착했다. 김주의 아들 김언기(金彦璣, 1520~1588)는 퇴계의 문인으로 후진 양성에 힘써 많은 인재를 배출했으나 벼슬에는 뜻을 두지 말라는 부친의 유훈을 지켜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며 산림처사로 은거했다.

제8곡 〈지보〉는 서애의 고제 정경세의 제자였던 정영방(鄭榮邦, 1577~1650)이 1609년에 용궁현 동쪽에 건립한 동래 정씨 종택이 있는 곳이다(그림2-8).[76] 현재 지보면 도장리에 있는 정사(鄭賜, 1400~1453)의 묘지는 조선의 8대 명당으로 꼽혔고, 정씨 문중의 재실을 지보재(知保齋)라 했다. 정사의 7세손이자 정유길의 증손 정기원(鄭期遠, 1559~1597)이 정유재란 때 명나라 총병 양원(楊元)의 접반사로 남원성에서 순절하여 선무공신으로 녹훈되어 이곳에 불천위 사당을 두었다. 정사의 맏형 정옹의 후손 정영방은 지보리에 지포서실(芝圃書室)을 세우고 후학을 양성했다.

제8곡 화면 상단 이의성의 관지에 따르면, 그의 현장 답사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고성군수 류철조의 가르침을 받아 그림을 그렸다고 한 점에서 화면 구성과 그 세부 내용에서 류철조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8곡을 안동부 지도 위에 표시해 보면 [그림3]과 같이 제1곡 예안현의 도산서원을 시작으로 안동 부치를 지나 제8곡 용궁현 지보리까지 좌측으로 차례로 낙동강을 따라 퇴계 학맥을 이은 영남 사족의 세거지와 서원, 정사, 후학 양성 공간, 재실 등이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하외팔곡도》 병풍은 낙동강 유역의 예안현, 안동부, 풍산·풍천면, 용궁현 등을 배경으로 퇴계 이황의 학맥을 계승한 영남 사족들의 세거지

---

76 그는 5세 때 부친 鄭湜의 종형제 鄭澡의 양자가 되었고 1605년에 진사시에 합격했지만,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고향에서 처사로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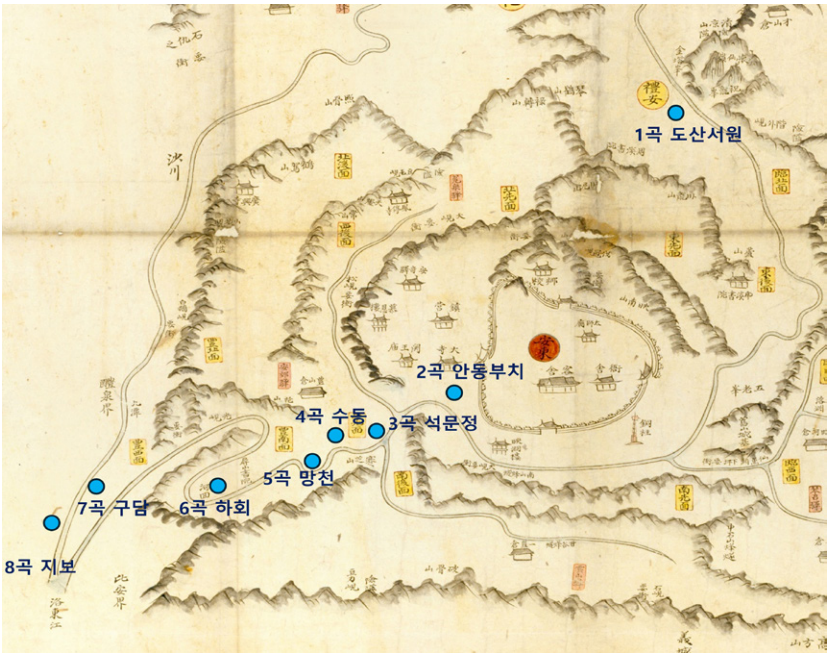

그림3-《안동도회 좌통지도》, 〈안동부〉 부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와 학문 공간을 시각화한 도상화 작업이다. 특히 류운룡과 류성룡을 비롯한 풍산 류씨를 중심으로 김성일·권호문·정경세·이돈·김언기·김낙행·정영방·정기원 등 퇴계 문인들과 그 후손들이 건립한 정사, 서원, 재실 등은 단순한 명승지가 아니라 학맥과 혼맥, 유교적 가치와 정치적 연대가 구체화된 장소들이었다. 이러한 공간은 퇴계 도학의 계승을 매개로 영남 남인들이 형성한 인적·지리적 네트워크를 반영하며, 병풍은 이들의 학문적 정체성과 도학의 공동체를 시각적으로 재현한 상징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병풍은 하외의 실경을 바탕으로, 풍산 류씨 가문의 역사와 유교적 이념을 축으로 삼아 지역 사족들과의 학문적·혈연적 연계를 정교하게 조직한 시각적 서사이다. 각 화폭은 단순한 경물 묘사를 넘어, 풍산 류씨를 매개

로 형성된 유교적 공동체의 공간 구조와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지리적·문화적 계보도로 기능한다.

Ⅳ. 맺음말

이 글은 풍산 류씨 가문이 낙동강 일대를 중심으로 제작한 그림과 시문을 통해 가문의 정체성과 학맥, 그리고 지역 내 위상을 어떻게 시각화하고 기념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풍산 류씨 가문에서 제작된 세 점의 '하외도'는 모두 풍산 류씨의 학맥과 유교적 가치, 퇴계학의 실천적 계승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식은 16세기 류운룡과 이황을 시작으로 고향을 그리는 정서적 표현에서 류성룡을 거쳐 효의 실현과 도학적 공간화으로 이어졌고, 19세기에는 영남 사림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문화사적 재구성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그림들은 영남 남인의 도학적 정체성이 시공간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전승했는지를 보여 주는 시각 자료이다.

1568년 정주부사 류중영은 자신의 별서와 전장이 위치한 낙동강 일대의 실경을 담은 《하외상하낙강일대도》를 제작했다. 이 병풍은 단순한 고향 회상의 도상화를 넘어서, 퇴계 이황을 비롯해 정유길 외에도 이해수, 신응시 등 독서당 사가독서에 참여한 명류들로부터 제영을 받아냄으로써 학문적 교류와 정서적 연대를 구현한 작품이었다. 이를 통해 병풍은 문화적 교유의 상징물이자 영남 사림의 네트워크 확대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매개체로 기능했다.

이어 1578년 류성룡은 부친의 전례를 따라 자신도 《하외산수도》를 제작했다. 그 소재는 「옥연십영」이라는 시문에서 엿볼 수 있듯 자신이 조성한 원지정사와 옥연정사, 그리고 선영을 그리게 함으로써 가문에 대한 숭모와 퇴계

학의 실천적 공간을 구조화했다. 이후 류성룡의 장손 류원지와 5세손 류성화도 하외의 경승지를 주제로 시를 짓고 명승을 설정하며 가문의 문화적 정체성을 계승했다. 비록 임진왜란으로 인해 초기 회화 작품들이 소실되었지만, 후손들은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하고 기념했다. 특히 1742년에는 류영이 하외도 병풍에 썼던 퇴계의 서문과 시, 임당의 시를 판각하여 후손 교육과 조상 숭모의 공간으로 삼았다.

이러한 전통은 1828년 류철조에 의해 다시 한번 시각화되었다. 그는 강원도 고성군수 재직 중 흡곡현령 이의성의 도움으로《하외팔곡도》병풍을 제작했다. 이는 정유길의 후손인 정원용과의 정치적·학문적 연대를 바탕으로 양가에서 각각 소장하게 되었다. 이 병풍은 예안현의 도산서원과 분강서원을 시작으로, 안동의 향교와 주요 관아, 풍산현과 용궁현 일대의 서원과 정사를 중심으로 이황·이현보·김우옹·김성일·정구·권호문 등 퇴계 학맥을 이은 사림들의 삶과 사적을 실경으로 형상화했다.

결과적으로《하외팔곡도》는 낙동강 유역을 배경으로 퇴계 학맥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사족의 관계망, 사림 중심의 향촌 질서, 가문의 학문적 전통과 정체성을 영남 사림과의 연계로 확대하여 시각적으로 구현한 회화 작품이다. 그림 속 경관은 단순한 자연 경관을 넘어서, 명문 사족 가문 간의 학문적 연계와 후손들의 기억·숭모 의식을 반영하며,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新增東國輿地勝覽』.

『新增安東府輿地誌』.

『光國功臣會盟錄』.

『西厓先生年譜』.

『松巖先生年譜』.

『十二功臣會盟祭文』.

『淸難原從功臣錄券』.

權榘,『屛谷集』.

權德秀,『逋軒文集』.

權萬,『江左文集』.

權好文,『松巖集』.

金如萬,『秋潭文集』.

柳建春,『楠翁遺稿』.

劉商,『全唐詩選錄』.

柳成龍,『西厓文集』.

柳成龍,『聖謨錄』.

柳雲龍,『謙菴先生年譜』.

柳雲龍,『謙菴集』.

柳元之,『拙齋集』.

柳初,『柳川先生遺稿』.

柳台佐,『鶴棲文集』.

李萬敷,『息山文集』.

李象靖,『大山集』.

李滉,『退溪集』.

鄭惟吉,『林塘遺稿』

鄭允穆,『淸風子集』.

蔡濟恭,『樊巖集』.
洪汝河,『木齋集』.

2. 논저
강경원,「李義聲의 실경산수화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구봉수,「河回마을의 精舍建築에 관한 硏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국립중앙박물관(편),『하늘이 내린 재상, 류성룡』,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
권선정,「사회적 지위 상징으로서의 경관: 河回의 豊山柳氏 宗宅景觀 읽기」,『국토지리학회지』37, 2003, 1~29쪽.
권은지,「정원용의 사환기 교유 관계 연구」,『고전과해석』33, 2021, 271~302쪽.
김경수,「임진왜란 기 '이몽학의 난'에 대하여」,『한국사학사학보』46, 2022, 131~163쪽.
김명자,「조선후기 안동 하회의 풍산류씨 문중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명자,「16-17세기 하회 풍산류씨가의 종법 수용 과정」,『대구사학』96, 2009, 59~83쪽.
김명자,「순조 재위기(1800~1834) 河回 豊山柳氏의 현실 대응과 관계망의 변화」,『국학연구』29, 2016, 77~112쪽.
김상진,「權榘의 〈屛山六曲〉에 나타난 공간 인식과 연작성」,『동방학』19, 2010, 117~146쪽.
김수현,「학서 류이좌의 삶과 문학」,『동양학』64, 2016, 1~17쪽.
김영진,「청류관 이의성의 생애와 시문집」,『한문학보』19-1, 2008, 853~873쪽.
김학수,「여강서원과 영남학통: 17세기 초반 묘향논의를 중심으로」, 조선사연구회(편),『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서울: 조선사회연구회, 1998.
김학수,「17세기 西厓 柳成龍家의 學風과 그 계승 양상」,『퇴계학과 유교문화』55, 2014, 59~98쪽.
노재현·오현경·심상섭,「하회마을 부용대의 경관 해석 및 보전방안:「玉淵書堂記」와「玉淵十詠」을 중심으로」,『한국전통조경학회지』31-1, 2013, 59~70쪽.
노재현·이현우,「河回十六景과 河隈洛江上下一帶圖를 통해 본 하회 16경의 경관상」,『한국전통조경학회지』31-1, 2013, 48~58쪽.
류한영,「시문을 통해 본 하외16경의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류한영·장태현·신상섭,「「겸암옥연정사십육경기」에 나타난 하회16경의 경관특성」,『한국전통조경학회지』22-3, 2004, 56~65쪽.

박현아·윤재윤, 「병산서원에 나타난 현상학적 공간 특성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2, 2019, 107~118쪽.
서수용, 「하회의 경관과 16경」, 『안동학연구』 16, 2017, 191~209쪽.
신소윤, 「『하회십육경』과 『하회구곡』의 공간 형성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89, 2021, 65~93쪽.
안병걸, 「풍산류씨 가문의 학문 전통과 가학 계승」, 『국학연구』 35, 2018, 155~188쪽.
유재빈, 「陶山圖 연구」, 『미술사학연구』 250-251, 2006, 187~212쪽.
이욱, 「풍산류씨 화경당 고문서로 읽는 사회사」, 『안동학연구』 7, 2008, 65~90쪽.
이홍식, 「서애 류성룡의 玉淵十詠을 통해 본 하회의 장소성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40, 2021, 229~257쪽.
정겨운, 「한국 전통마을 경관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정우락, 「18세기 후반 영남문단의 일 경향: 지애 정위의 가문의식」, 『남명학』 15, 2010, 453~501쪽.
조규희, 「所有地 그림의 시각언어와 기능: 〈石亭處士幽居圖〉를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3, 2004, 8~37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고문서집성 15~18: 하회 풍산류씨편』(정서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고문서집성 1: 하회 풍산류씨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蘇軾(저), 曾棗庄(주), 「遊金山寺」, 『蘇軾詩文詞選擇』, 成都: 巴蜀書社, 1991.

국문초록

이 논문은 풍산 류씨 가문이 제작한 낙동강 하외 일대의 그림을 기록과 현전 작품을 바탕으로 학맥과 가문 현창의 맥락에서 고찰한 것이다. 1568년 류중영이 정주부사로 재직 중 제작한《하외상하낙강일대도(河隈上下洛江一帶圖)》병풍은 고향에 대한 애정을 담아 그려졌으며, 이황·정유길 등의 시문과 독서당 출신 문사들의 제영을 통해 한강과 낙동강의 지성 네트워크로 확대되었다. 이후 1578년 류성룡은 선친의 전례를 따라 가학의 핵심인 충효에 중점을 두고《하외산수도(河隈山水圖)》를 제작했으며, 그 내용은 그의「옥연십영」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두 작품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나, 전란 이후 하외도 시화는 풍산 류씨는 가문의 위상을 회복하고 선조의 업적과 학맥을 연결하는 매개가 되었다. 이런 전통은 1828년 류철조에게 이어져 강원감사 정원용과의 교류를 계기로 이의성에게《하외팔곡도》병풍을 제작하게 했다. 하외도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풍산 류씨뿐만 아니라 지역 명문가들의 세거지와 주요 사적을 담아 퇴계 학맥 중심의 사족 관계망이 시각화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풍산 류씨 가문에서 제작된 세 점의 '하외도'는 모두 풍산 류씨의 학맥과 유교적 가치, 퇴계학의 실천적 계승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16세기 류운룡과 퇴계를 시작으로 고향을 그리는 정서적 표현에서 류성룡을 거쳐 효의 실현과 도학적 공간화으로 이어졌고, 19세기에는 영남 사림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문화사적 재구성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그림들은 풍산 류씨를 중심으로 영남 남인의 도학적 정체성이 시공간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전승했는지를 보여 주는 시각 자료라 할 수 있다.

투고일 2025. 7. 4.
심사일 2025. 7. 28.
게재 확정일 2025. 8. 26.
주제어(keywords) 풍산류씨(Pungsan Ryu clan), 하외도(Haoe-do), 퇴계 학맥(scholarly lineage of Yi Hwang), 영남 사림(Yeongnam confucian lineage), 낙동강(Nakdong river)

Abstract

Visualizing Scholarly Solidarity: The Pungsan Ryu Clan's Hwaoe-do Paintings and the Affirmation of the Yeongnam Intellectual Lineage

Jeong, Eunjoo

This study examines the paintings of the Nakdong River and the Hahoe area produced by the Pungsan Ryu clan, based on historical records and surviving works, within the context of scholarly lineages and familial commemoration.

In 1568, Ryu Jung-young commissioned a screen painting depicting his hometown before his reassignment. The painting had verse inscriptions contributed by Jeong Yu-gil, Yi Hwang, and officials who had been granted royal leave (賜暇) to pursue study and self-cultivation at the Scholarly Retreat by the Han River. In 1578, Ryu Seong-ryong similarly commissioned a work expressing filial piety, although the artwork was later lost during the Imjin War. After the Imjin War, the clan employed visual art to reinforce social ties with local authorities. In 1828, Ryu Cheol-jo requested the "Haoepalgokdo screen," showcasing key sites along the Nakdong River and reflecting the cultural identity and scholarly heritage of the Toegye scholarly lineage.

The three extant Hahoe-do paintings created by the Pungsan Ryu clan convey the clan's academic lineage, Confucian values, and the practical succession of Yi Hwang's learning. However, the modes of expression evolved over time. Beginning in the 16th century with Ryu Jung-young and Yi Hwang, the paintings reflected emotional attachment to the homeland, emphasizing filial piety and the spatial embodiment of Neo-Confucian ideals. By the 19th century, they had developed into cultural-historical reconstructions centered on the scholarly networks of the Yeongnam gentry society. Ultimately, these paintings serve as visual evidence of how the Neo-Confucian identity of the Yeongnam Namin lineage, centered on the Pungsan Ryu clan, was reproduced and transmitted across time and space.